

너희가 주의 재림을 보리라(눅2:26)

재림대망

장로 이재학

알림

이 책은 2013.12.출간(비매품) 하였습니다
인터넷 독자를 위하여 올립니다.
내용을 고치거나 유상배포 하지 않습니다.
저자 씀

머리말

내 평생 처음 책 한권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작은 책이지만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산기도 등으로 출타하셨을 때 일년에 한 번 정도 수요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 때 전한 말씀 원고와 신앙 체험 몇편을 모아 보았습니다.

탄방교회의 현임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역대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과, 교단 총회장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66권의 강해서가 원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과 예문은 한국성경공회가 출판한 바른성경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애 중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는, 재림이 아주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림대망 부활소망을 가지고 주일성수 하며 복음전도 하십시오.

2013. 1.

이재학 씀

차례

1. 나를 잊지 말아라 (재림1) -----	3
2. 버려야 할 관습 - 추도 예배 -----	20
3.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 - 열린 예배 -----	29
4. 따를 수 없는 제도 - 여성목사(장로) -----	35
5. 뉴에이지를 경계하라 -----	41
6. 성전의 두 기둥 (재림2) -----	45
7. 주일성수 -----	61
8. 별을 내 가슴에 -----	67
9. 향유 헌신-----	76
10. 나중에 후회할 일 하지마라 -----	82
11. 술 먹지 마라 -----	89
12. 의인의 간구 -----	94
13. 독도 -----	101
14. 말씀으로 인도하심(간증) -----	106
15. 에피소드 -----	121
16.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	128
17.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	130
18. 서원 -----	133
19. 분을 내지마라 -----	137
20. 우리 서로 사랑하자 -----	142

1. 나를 잊지 말아라 (재림1)

<성경 본문> 말라기 3:7~12 4:1~3

3:7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한다.

8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적질하였습니까?’ 하니 바로 십일조와 헌물이 아니냐?

9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10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로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 붓지 않나 보아라.”

11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충을 막아 너희 땅의 소산물을 멸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12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4:1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용광로같이 불타는 그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모든 교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른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울 것이니 그들에게는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것이다.

2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3 너희가 악한 자들을 짓밟을 것이니 내가 정하는 그 날에, 그들은 마치 너희 발바닥 밑에 있는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차례

1. 말라기 시대의 상황
2. 하나님이 주신 말씀
 - 1) 온전한 십일조를 하라
 - 2) 의로운 해를 기다리라
3. 오늘의 시대 상황
 - 1) 종교적인 상황
 - 2) 사회적인 상황
4. 재림의 표징
5.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
6. 맺음말

1. 말라기 시대의 상황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주전 430년경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이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400여 년간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주시지 않는 암흑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암흑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라기서의 내용은 여러 가지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 이방 결혼 하는 것, 이혼과 온전치 못한 십일조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보고 매를 때리며 책망할 때의 그 심정과 같으신 것이요, 또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거나 먼 곳으로 보낼 때 그 부모의 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400여년의 암흑시대를 겪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말라기서는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장 10절 말씀과 같이 온전한 십일조를 하라는 것과, 본문 4장 2절 말씀과 같이 의로운 해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1) 온전한 십일조를 하라

① 십일조의 기원(근원)

선악과

창 2:8~9 16~17

2:8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9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나게 하셨는데,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16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네가 먹을 수 있으나,
17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마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에덴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심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드림

창 14:20

14:20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람이 모든 것 중에서 십분의 일을 그에게 드렸다.

야곱의 베델 서원

창 28:22

28:22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② 십일조 명령

레위지파를 위한 십일조 (제1십일조)

민 18:21~24 (레 27:30~33, 신 14:22)

18:21 “보아라, 내가 레위 자손에게 그들의 일, 곧 회막에서 섬기는 일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십일조를 유업으로 주었다.

22 이스라엘 자손은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도록 다시는 회막에

가까이 오지 마라.

23 오직 레위인이 회막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갚아져야 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는 그들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들어 올려 바치는 십일조를 내가 레위인에게 유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매년 그 해 소출의 십분의 일

축제를 위한 십일조 (제2십일조)

신 14:23

14:23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 앞, 곧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신 그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새끼를 먹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항상 여호와 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매년(제 삼년 제외) 제1십일조를 제한 나머지 소출의 십분의 일

구제를 위한 십일조 (제3십일조)

신 14:28~29

14:28 너는 매 삼년 끝에 그 해에 거둔 소출의 십일조를 모두 모아서 네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29 너와 나눌 몫과 유업도 없는 레위인을 오게 하고 네 성문 안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도 배불리 먹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매 삼년 마다 제1십일조를 제한 나머지 소출의 십분의 일

③ 십일조 실행 기록

누 10:37 (12:44, 13:12)

10:37 우리는 처음 익은 밀가루와 들어 바치는 제물과 각종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우리 하나님 성전의 창고 방에 두고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 토지의 십일조를 주기로 하였으니, 레위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읍에서 십일조를 받게 하였다.

④ 십일조에 대한 신약 말씀

마 23:23 (눅 11:42, 히 7:2~6)

23:23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인 의와 긍휼과 신뢰는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신약시대는 십일조를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은 거짓.

⑤ 십일조의 뜻

십일조 헌금 : 소득의 십분의 일을 섬기는 교회에 헌금함

십일조의 뜻 :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 증거로 소득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침

시 24:1

24:1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다.

신 8:17~18

8:17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18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⑥ 십일조 체험

군대 제대하고 철도청 7급 공무원으로 제천역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의 일이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이다.

아내가 십일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 한번 걸렸다.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그돈 보다 더 들어갔다.

⑦ 본문에서 십일조를 강조하신 이유

신앙의 기본을 바로 세우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8)

저주를 받았으되 깨닫지를 못함(9)

온전한 십일조를 할 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심(10, 11)

십일조 생활은 성도가 지켜야 될 신앙의 기본임.

신약시대 성도가 지켜야 될 신앙의 기본

우상금지, 주일성수, 십일조 + 전도 (3 + 1)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신앙의 기본을 세우라.

나를 잊지 말아라

암흑시대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2) 의로운 해를 기다리라

의로운 해 : 예수님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이면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녹아있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마귀와 지옥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3. 오늘의 시대 상황

1) 종교적인 상황

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됨

마 24:14

24:14 그 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음이 신약시대에 이방으로 전파되고 이제 마지막엔 다시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

롬 11:25~26

11:25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② 기독교가 심히 타락함

마 24:3~5 23~24

24:3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한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였다.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5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23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하여도 믿지 마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왔습니다.

암 8:11~13

8:11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12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에서 동까지 돌아다니며, 여호와와의 말씀을 구하나, 사람들이 얻지 못할 것이다.

13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목말라 지쳐 쓰러질 것이다.”

이단이 창궐하고 많은 교회들이 넓은 길로 감으로 기독교가 심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단 창궐 : 국내·외에 수많은 이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리적 이단

요일 2:22

2:22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성경의 무오, 영감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무죄, 대속, 육체부활, 승천, 재림, 심판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신성(참 하나님)과 인성(참 사람)을 부인하는 자.

천국, 지옥, 신자의 육체부활을 부인하는 자.

사후 심판을 부인하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행위적 이단

벧후 2:1~3 (딤후 1:16)

2:1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자신을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인다.

2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방탕을 따를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받게 될 것이다.

3 그들은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이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않았고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불순종하는 자.

호색, 탐심, 음란, 불의한 삶을 취함, 허탄한 자랑을 함,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

이단이 운영하는 기업체, 문화단체들이 많이 있음

이단의 특징

1. 자신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함.
2.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거짓말 함.
3. 교주를 신격화 함 (대리자, 인 펜 자, 재림자, 심판자).
4. 정체를 밝히지 않고 교묘히 위장함.
5. 공격적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돈, 폭력등 모든 수단을 동원)
6. 비윤리적임.
7. 성경을 왜곡시킴.

이단이 침투하는 방법

1. 전도 당해 가는 방법 : 전도 대회 때 또는 교회 성도, 교역자에게 접근하여 전도를 받아 침투한다.
2. 기존 교인들을 포섭하여 계속 그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활동하게 한다.
3. 다른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나왔다고 하며 교회에 접근하여 침투한다.
4. 이미 침투한 사람이 전도해 오는 것처럼 끌어들인다.
(간접 침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단 색출법

1. 장기간 교회생활 하면서도 정상적인 헌금생활을 하지 않는 자
2. 가정생활이 교역자에게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사람
3. 심방을 극도로 거부하는 사람
4. 교회 밖에서 성경공부를 하자고 권하는 사람
5. 교역자를 헐뜯는 사람

할 수만 있다면 택한자들도 미혹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마 24:24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들이 넓은 길로 감

교회들이 인본주의로 기울어 많이 타락하고 있다.

1. 추도예배
2. 열린 예배
3. 여자 목사(장로)
4. 복음성가
5. 에큐메니칼 운동
6. 뉴에이지 사상
7. 주일성수의식이 흐려짐
8. 온전한 십일조를 하지 않음
9. 전도를 하지 않음
10. 교회의 사유화 (대물림)
11. 교회의 대형화 (사업주의)
12. 방언, 신비주의, 기복신앙, 은사주의

교회들이 이렇게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해야 부흥이 되지 이런 안이한 인본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은 이미 돌이키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타락 상황은 계시록 6장의 청황색말(혼합주의)의 출현 현상이요, 계시록 13장의 666현상인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넓은 길로 가는 즉 양다리 걸친 신자들의 영적 생명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2) 사회적인 상황

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함

단 12:4

12:4 너 다니엘아, 너는 이 말씀들을 간수하여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함하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오가며 지식을 더할 것이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같이 인본주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 놓았습니다.

문명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한 예를 들면 생명공학의 발달은 인간복제가 가능할 수도 있는 단계에 까지 와있습니다.

② 사회 혼란이 심해짐

마 24:7

24:7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짐

딤후 3:1~5

3: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3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원자재의 고갈, 식량난, 전염병 창궐 : 2008년 가을에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계시록 6장 셋째 인을 떼실 때 나온 검은 말이

요, 2009년 봄부터 시작된 신종 플루,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요 위치를 차지한 것, 이슬람권 사회가 국제질서의 중요 문제로 등장한 것 등이 넷째 인을 떼실 때 나온 청황색 말로 보아야 합니다.

사회질서, 윤리도덕이 파괴됨 : 사람 죽이고 죽는(자살)일이 너무도 쉽게 일어나고,성폭행 동성애등 성적타락이 극심함.

전쟁, 테러, 폭동이 빈발함 : 작은 나라들까지 핵무기를 만들고 있음

율 3:9~10

3:9 “너희는 민족들에게 이것을 외치며 전쟁을 선포하여라. 용사들을 격려하여 모든 병사를 집결시키고, 그들로 가까이 올라가게 하여라.

10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사람도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여라.”

지진, 화산, 태풍, 온난화 등 자연재해가 빈발.

4. 재림의 표징

마 24:32~ 33

24:32 “무화과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문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A.D. 70년 로마의 티토장군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1900년 만인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였음.

지금은 그 날로부터 60년이나 지난 상태임.

60년 전에 우리 문 앞에 이르신 예수님, 이제 문만 여시면 되는데 과연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5.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

마 24:21~ 22

24:21 그 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2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말세 7년(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음) 대환난의 전반기 3년 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환난을 통과해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하였습니다.

6. 맺음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라기 시대보다도 더 절박한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말라기 시대 성도들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며 초림 예수님을 기다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와 복음을 전하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경건 생활하며 성전에서 기도할 때 “너희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하신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너희가 주의 재림을 보리라” 이런 주님의 약속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보통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말라기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시록들은 말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주체인 반면 말라기서는 그 말세를 실제로 만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말라기 시대 백성들에게 온전한 십일조를 하며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말세 7년 대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님이 세미한 음성(왕상19:12)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도 들으시길 원합니다.

2. 버려야 할 관습 - 추도예배

<성경본문> 에스겔 8:1~18

8:1 제 육년 유월 오일에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주 여호와의 손이 거기에서 내게 임하셨다.

2 내가 보니, 인자 같은 형상이 있었는데,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았으며, 허리 위는 광채가 나서 번쩍이는 보석과 같았다.

3 그분께서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한 움큼 잡으셨다. 영이 나를 들어 땅과 하늘 사이로 올리시어,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북쪽의 안뜰 문 입구에 이르시니, 그곳은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이었다.

4 보아라,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내가 골짜기에서 본 모습과 같았다.

5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하시므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북쪽 입구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6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그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네가 보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서 심히 역겨운 일들을 행하여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 네가 다시 심히 역겨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셨다.

7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뜰 문에 이르셨는데, 내가 보니 벽에 한 구멍이 있었다.

8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벽을 뚫어라.” 하시므로 내가 그 벽을 뚫으니 한 문이 있었다.

9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어가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하시므로

10 내가 들어가 보니, 온갖 기는 것들과 혐오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사면 벽에 그려져 있었다.

11 거기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칠십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서 있었으며 그들이 각자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 연기가 구름 같이 올라가고 있었다.

12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움 속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한다.”

13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 그들이 행하는 심히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셨다.

14 그분께서 또 나를 북쪽으로 향한 여호와의 집 문 입구로 데려가시니, 보아라, 그곳에 여자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었다.

15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네가 이보다 더 심히 역겨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셨다.

16 그분께서 또 나를 여호와의 집 안뜰에 데리고 가시니, 보아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었다.

17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역겨운 것들을 어찌 가벼운 일이라 하겠느냐? 그들이 이 땅을 폭력으로 채우며, 다시 나를 격노하게 하였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두었다.

18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본문의 내용은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 행위들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투기의 우상, 가증한 짐승 우상, 담무스 우상과 동방태양을 숭배하는 제사장, 장로, 여인들과 백성들을 단죄와 불꽃 같은 형상으로 즉, 심판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공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분노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절의 투기의 우상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으로 오늘날 어떤 일로 인하여 서로 투기하는 것을 말한다. 성도가 시기 질투하는 것은 투기의 우상을 섬긴 결과다.

10절의 가증한 짐승 우상

가증하고 더러운 세상의 우상으로 성도가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

14절의 담무스 우상

미동의 신으로 여자들이 아름다운 남자를 사모하며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우는 것이다.

16절의 동방태양우상

아침에 새로 나온 빛인데 신출세력이나 새로운 문명, 문학, 과학, 학설, 제도 등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추도예배”도 바로 동방태양우상과 가증한 짐승우상과 다를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

추도예배는 복을 받기 위해 조상의 기일, 생일, 설날, 추석 등에 행하며 음식을 차리거나 또는 차리지 않기도 하며 성묘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추도예배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1. 성경에 추도예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근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① 신앙의 선진들이 아무도 그들의 조상을 제사하거나 추도하지 않았습니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야곱이 이삭을 추도하지 않았습니니다.

선지자 중에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그 누구도 그들의 조상을 추도하지 않았습니니다.

② 죽은 자를 기념하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성물을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 26:14 (신 14:1, 겔 24:17)

26:14 나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않았고, 부정 한 몸으로 그것을 떼어 내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그것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였습니니다.

③ 이삭의 산당을 황폐화 시키셨습니다.

암 7:9

7:9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며,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전 800년 경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이삭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이삭을 기념하였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이삭의 산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당들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조상 이삭을 추모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기념하는 산당을 없애 버리셨습니까?

④ 우상의 제물을 먹은 죄를 벌하셨습니다.

시 106:28~29

106:28 그들이 바알브올에게 속하며 죽은 자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습니다.

29 그들은 이 행위들로 주님을 격노하게 하니 그들 중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중 싯딤에 머물렀을 때 발람의 꾀에 빠진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며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열병을 내리시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민 25:1~9)

⑤ 바알과 하나님 중 택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왕상 18:21

18:21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 하였다.

신 22:9~11 “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되며”

2. 조상 제사가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주장합니다.

① 물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요 계명인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대한 계명의 첫째요, 또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첫째 대상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죽음은 우리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 9:27

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서로 왕래가 불가 하듯이(눅 16:26) 현세와 사후세계도 왕래와 소통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② 추도예배는 제사에 예배의식을 가미한 인본주의 수단입니다.

제사는 공자가 주전 500년경에 창시한 유교의 주요 의식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를 숭배하는 정책을 씀으로 선조들의 의식이 유교화되었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제사는 효도가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고전 10:20

10:20 이방인이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악령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정성껏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부모님과 상관이 없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됩니다.

④ 제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격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3. 왜 추도예배의 유혹에 빠지는가?

①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

롬 10:2~3

10:2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3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말씀 없는 믿음은 맹신이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음.

② 습관, 관습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

창 12:1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땅, 네 친족, 네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③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

민 13:30~14:3

13:30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31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백성에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하고,

32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혹평하였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았던 모든 백성들은 키가 매우 큰 사람 들이었고,

33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 중의 하나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14:1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

2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혹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3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이 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열두 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 열 명은 우리가 올라가면 죽는다고 보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백성들은 그 열 명을 따라 낙심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반드시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4. 결론

추도예배는 효도가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성전 안에서

행해지던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단호히 끊어버려야 할 관습인 것입니다.

조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삼상 2 : 6~7)

3.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 - 열린 예배

<성경본문> 창세기 4:1~7

4:1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와 도움으로 남자 아이를 얻었다.” 하였다.

2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3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4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화를 내며 왜 네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7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였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 다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1. 아벨의 제사

① 하나님의 말씀(뜻)에 맞는 제사

창 3:15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창 3:21

3:21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부모가 전해준 복음을 믿고 희생(양)의 피로 제사 드림.

②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제사를 드림

히 11:4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롬 12:1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요 4:23~24

4:23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 때 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24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아벨은 희생의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며 제사를 드림.

2. 가인의 제사

가인은 부모가 전해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았다. 자기가 가진 좋은 것 중에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

하나님 뜻은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드린 제사는 죽은 제사임 사 1:11~13

1: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많은 제물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지만,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13 헛된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게 혐오스럽고 초하루 제사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거룩한 집회를 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3. 3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요즘 우리나라에 번지고 있는 열린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열린 예배의 시작

열린 예배는 1973년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빌스 목사가 시작하였고, 요즘 새들백 교회의 릭 위렌 목사가 이슈가 되고

있으며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다.

② 열린 예배의 형식

밴드의 전주 → 환영 인사 → 보컬듀엣 → 스킷 드라마 → 보컬 그룹 연주 → 드라마 → 성경 읽기 → 밴드 합창 → 헌금 → 설교 → 토론과 교제

③ 열린 예배를 하는 교회

미국에서 시작된 열린 예배가 국내에도 전파되어 몇몇 대형교회와 중소교회들이 이를 분별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④ 열린 예배를 하는 핑계

불신자들을 포용할 수 있다.

대중매체에 길들여진 세대에게 새로운 복음 접근법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도 변화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서구의 성장하는 교회에서 열린 예배를 하고 있다.

⑤ 열린 예배의 문제점

예배가 아닌 전도 집회 수준.

인간을 위한 인간의 봉사가 목적: 불신자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는 정도임.

하나님 중심 예배가 아닌 인간 중심 예배: 불신자인 예배 참여자의 관심을 끌기 위함.

수단으로 전락한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자체가 목적인데 열린 예배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예배 행위의 대부분이 무대에서 행해진다: 관중은 감상, 구경한다.

경건함 보다 인간 흥미 중심이고, 설교보다 의식 위주.

4. 열린 예배 비관의 성경 근거

렘 15:19

15:19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니, 네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만일 네가 천박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포한다면 네가 나의 입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더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지 말라.
그 사람들 전도되기 전에 네가 먼저 타락한다.

대상 15:25~29 다윗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출 32:1~6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다윗왕도 뛰며 춤추고, 모세의 백성들도 뛰어 놀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백성들에게만 진노하시었다.

두 부류 모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였고, 모세의 백성들은 인간의 생각대로 하므로 결국은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다.

5. 예배

예배는 예수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
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믿음 안에서의 응답이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예수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6. 예배의 구성요소

말씀

성례(세례와 성찬)

기도(찬송과 기도)

헌금

7. 결론

열린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는 것으로,
진짜가 아니고 비슷한 것이요,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요, 가
인의 제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4. 따를 수 없는 제도 - 여성 목사(장로)

<성경 본문> 딤후 2:9 ~ 3:7

2:9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고, 수줍음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땀은 머리카락이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10 오직 선한 행위로 단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11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워라.

12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13 이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14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여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15 그러나 여자가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3:1 만일 어떤 이가 감독의 직분을 바란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그 말은 참되다.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3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온화하고,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6 또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될 것이니, 이는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7 또한 불신자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비방을 받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1. 목사

목사는 총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목사될 자는 신학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한다.

목사의 직무

① 목사가 교회를 관리할 때는 양 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로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②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같이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③ 선교사로 외국에 선교할 때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④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하는 경우에는 교회에 덕의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

⑤ 기독교 교육 지도자로 목사가 노회나 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

2. 장로

장로는 말씀과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

장로의 직무

- ①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살핀다.
- ②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 ③ 교우를 심방하여 위로, 교훈, 간호한다.
- ④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 ⑤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위 내용은 대한 예수교장로회(계신측) 헌법 중에서 인용한 것임>

3. 여자를 목사(장로)로 세울 수 없는 이유

- ① 창조의 원리상 불가

창 2:21~25 (딤펢전 2:13)

2:21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므로 그가 잠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중 하나를 뽑고 그 대신 살로 채우셨으며,

22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뽑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23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24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25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심.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심.

② 범죄의 순서상 불가

창 3:6~7 (딤펢전 2:14)

3:6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7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하와가 뱀의 꾀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함.

여자가 먼저 범죄하고 남자를 범죄하게 함.

③ 남녀 간의 질서상 불가

창 3:16

3:16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네 소원은 네 남편에게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④ 교회의 질서상 불가

고전 11:3

11: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

⑤ 성경이 허락하지 않음

딤후 2:11~12

2:11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워라.

12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딤후 3:1~2 (딤후 1:5~6)

3:1 만일 어떤 이가 감독의 직분을 바란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그 말은 참되다.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 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고전 14:34~35

14:34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여라.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 율법이 말한 것같이 여자들은 복종하여라.

35 무엇을 배우기 원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 보아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4. 여성 목사 장립측의 주장

남녀 평등 (갈 3:28) : 인격, 인권면에서 남녀 평등이다.

구약시대 여선지자 : 드보라, 미리암

여자도 능력이 있다 : 능력, 지혜, 사랑이 더 많은 여자가 있다.

만인 제사장 교리

신약 초대교회 여사역자 : 브리스길라, 비비

여선지자와 여사역자가 있었으나, 단독 사역자는 아니었고, 드보라 사사(삿 4장) 시대는 세울만한 다른 인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드보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삿 5:7

5:7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다.

5. 성경의 사례

예수님의 12사도 선택 (마 10:2~4)

사도 결원 보충 (행 1:24~26)

일곱 집사 선출 (행 6:3~6)

교회의 주요 일꾼을 세울 때 여자를 택하지 않음

5. 뉴에이지를 경계하라

<성경 본문> 계 6:7~8

6:7 넷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오너라.” 하였다.

8 그때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으며, 음부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으로 땅의 사분의 일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1. 뉴에이지의 정의 (그들의 주장)

우주적 에너지(힘)를 신으로 규정한다.

인간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깨달음의 단계를 통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2. 뉴에이지 운동의 특징

종교, 사상, 문화(문학, 예술, 음악), 건강, 정치, 경제, 영화, 스포츠 등등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 다 침투해 있다. - 혼합주의요 청황색 말 운동이다.

3. 뉴에이지 운동의 목표

인본주의 부활, 세계 정부 수립, 종교 통합(바벨탑 운동)

4. 사람들이 뉴에이지에 빠지는 이유

심판이 없다고 하기 때문, 신비의식과 자연요법을 체험케 하기 때문, 미래를 점치며 자신의 앞날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 교회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빠진다.

5. 뉴에이지의 시작

1875년 러시아인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가 신지학 협회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뉴에이지 운동을 시작함.

1973년 미국의 마릴린 퍼거슨에 의해 널리 퍼짐.

6. 우리나라의 뉴에이지

불교 (범신론, 업사상, 해탈, 미륵불)

원불교, 증산도, 무당, 도교, 단학, 기체조

7. 뉴에이지의 사상

범신론 :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 이 세상 모든 것이 신이라고 주장

일원론 : 인간과 생물, 무생물의 본질이 하나라고 주장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부정함

환생론 : 진화론 사상, 윤회사상,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을 부정함

다원주의 :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을 부정함

초월사상 :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여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

합일사상 : 인간이 우주와 합해질 수 있다고 주장

세속인본주의 :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

8. 단체

신지학협회(Theosophical Society)

루시스트러스트(Lucis trust)

타라센터(Tara center)

그린피스(Greenpeace)

프리메이슨(Freemason)

라엘리안 무브먼트 : UFO신봉 (클로네이드 - 인간복제회사)

9. 상징물

앵크(Ankh), 오각형별, 다윗별, 전능자의 눈, 혼돈의 십자가, 유니콘(빨 달린 짐승), 피라미드, 나치 십자가 문장.

10. 음악

태교음악(김도향, 이루마, 이사오, 사사키), 조지 해리슨의 비틀즈, 존 덴버의 컨트리,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

11.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의 ET, 조지 루카스의 별들의 전쟁, 데미 무어의 사랑과 영혼, 조디 포스트의 컨택트, 은행나무 침대, 자귀모, 퇴마록

12. TV

매직키드 마수리(마법), 올라불라 블루짱(외계인), 스머프 가족, 우주정복자 히맨, X파일, 토요미스터리극장, 오프라 윈프리 쇼

13. 책

명상서적, 자기로부터의 혁명, 성자가 된 청소부, 배꼽

<위 내용은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였음>

14. 맺음말

옛날에 한창 유행하던 뉴에이지 운동이 지금은 잠잠해진 것이 아니고, 뉴에이지적 요소들이 우리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 이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둔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나쁜 것도 반복해서 대하면 동화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뉴에이지적 요소들이 없는지 경계해야 됩니다.

뉴에이지는 단순한 사회풍조가 아니라 이단 종교 현상입니다.

계시록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청황색 말의 출현 현상 중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6. 성전의 두 기둥 (재림2)

<성경본문> 왕상 7:13~22

7:13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다.

14 그는 납달리 지파의 한 과부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낫을 다루는 대장장이였다 그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에 가득하여, 낫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를 위해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다.

15 그가 낫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두 기둥의 높이가 각각 십팔 규빗이었고, 십이 규빗 되는 줄이 둘레를 감쌀 수 있었다.

16 그리고 두 기둥머리를 낫을 녹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들 위에 두었는데, 한 기둥머리의 높이가 오 규빗이었고, 다른 기둥머리의 높이도 오 규빗이었다.

17 기둥들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에 바둑판 모양으로 얹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만든 사슬 장식들이 있었는데, 한 기둥머리에 일곱 개, 또 다른 기둥머리에 일곱 개가 있었다.

18 기둥들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덮도록 한 기둥머리에 석류 열매 두 줄을 만들어 두르고, 다른 기둥머리에도 똑같이 하였다.

19 현관에 있는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들은 백합꽃 모양이었는데, 너비가 사 규빗이었다.

20 두 기둥 위에 있는 기둥머리들은 그물 장식 가까이에 있는 둥근 돌출 부분 위에 얹혀 있었고, 석류 열매 이백 개가 줄을 지어 각 기둥머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21 그가 기둥들을 성전 현관에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불렀다.

22 기둥들 꼭대기에 백합꽃 모양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서 기둥

들의 작업이 끝났다.

차례

1. 역사적 실존 성전
2. 솔로몬 성전
3. 성전의 두 기둥
4. 신앙의 두 기둥
5. 주님의 재림시기에 대한 궁금증 3가지
6. 이 시대 우리가 세워야 될 신앙의 두 기둥
7. 결론

1. 역사적 실존 성전

1) 성막 (출 25~27장)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식양대로 조각목 널판으로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계를 모셨습니다.

이 성막이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를 거쳐 다윗 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2) 솔로몬 성전

원래 다윗왕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을 지으며 마음을 달랠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재료인 금과 은, 나무와 돌을 준비하여 줍니다.

시 131편

131:1 여호와시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으니, 나는 큰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멀리 했습니다.

2 오히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뎌 아이같이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였으니, 내 마음이 젖뎌 아이 같습니다.

3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라라.

그 후 솔로몬이 7년 반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오늘은 이 성전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3) 스룹바벨 성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70년 포로 귀환 후 (에스라서) 지은 성전

4) 헤롯 성전 (B.C 20~ A.D 63)

예수님 당시 즉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왕 때에 무려 83년 동안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완공 7년만인 A.D70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하여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5) 에스겔 성전

에스겔서 40~43장에 기록된 성전입니다,

실존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2.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설계

성전 식양, 즉 설계도는 하나님이 다윗왕에게 계시로 주신 것을 다시 솔로몬이 받아서 그 식양대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대상 28:10~13, 19)

2) 성전의 규모

길이 : 60규빗 (27m)

넓이 : 20규빗 (9m)

높이 : 30규빗 (13.5m)

그런데 이 규모는 성전 안, 즉 내측 규모입니다. 성전 바깥둘레에 폭 7규빗의 3층짜리 다락이 붙어 있어 아주 크고 웅장한 규모입니다.

밖에서 보면 대략 5층짜리 아파트 두 동을 붙여놓은 규모와 비슷할 것입니다.

3) 지성소(내소)

길이, 넓이, 높이 각각 20규빗 (9m)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4) 성소(외소)

길이 40규빗,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리는 곳

5) 낭실(현관)

길이 : 20규빗 (9m) 성전의 넓이와 같음

넓이 : 10규빗 (4.5m)

높이 : 120규빗 (54m)

역대하 3:4절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낭실은 현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현관인 것입니다.

본 건물에 부속된 것인데 이 기록대로라면 성전의 높이 30규빗보다 4배나 높게 됩니다.

120규빗은 아마도 사본 또는 번역본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넓이와 같은 10규빗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3. 성전의 두 기둥

1) 두 기둥의 규모

높이 : 18규빗 (8.1m) (대하 3:15 35규빗 = 15.75m)

둘레 : 12규빗 (5.4m) (직경 : 1.72m = 계산치임)

머리 : 5규빗 (2.25m)

구조 : 속이 빈 원통형 (두께 : 손가락 4개 = 8cm, 렘 52:21)

재료 : 놋쇠 (구리+아연10~45%의 합금인 황동(brass) 또는 구리+주석의 합금인 청동 (bronze))

제작방법 : 주조공법 (왕상 7:46)

위치 : 성전 낭실 앞 좌, 우에 각 1개씩

만든 사람 : 놋 기술자 히람 (단 지파 여인의 아들, 부친은 두로 사람)

명칭 : 우편은 야긴, 좌편은 보아스

만든 시대 :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B.C 960년경)

파괴 : 시드기야왕 때 바벨론 침공으로 느부갓네살왕의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왕하 25:13~17, 렘 52:13, 17) 파괴함(B.C 586년)

2) 두 기둥의 특징

① 강한 쇠(뿔)로 만듦

보통 나무와 돌로 만드는데 비해, 성전기둥은 강한 쇠(뿔)로 만들었음.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고 불변하심을 상징함

② 높이에 비해 굵은 몸통

어떤 것의 도움 없이 지탱하는 독립성, 큰 힘의 작용에도 건디는 강함

③ 건물(성전)을 지탱하는 용도가 아님

성전 건물과는 별개로 성전 앞에 세워짐

기둥이라고 하기 보다는 기둥형태의 조형물

성전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두 기둥 사이를 통과함

④ 이름이 있음

우측 기둥 : 야긴 (그가 세우리라)

좌측 기둥 :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3) 교훈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유지된다.

크고 화려한 성전 건물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성도가 성전에 들어가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견고하게 해주고 능력을 입혀주신다.

두 기둥은 즉 4:3 두 감람나무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성도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4. 신앙의 두 기둥

1)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① 마 22:37~40 (막 12:30, 눅 10:27, 레 19:18, 신 6:5)

22:3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40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② 출 20장 : 십계명

1~4 :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1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10: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

5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독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③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

수직 (상하) :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화평)

수평 (좌우) : 사람간의 사랑 (화평)

④ 고르반 사상에 빠지면 안 됨

막 7:9~12

2) 말씀과 기도

① 말씀

우리의 신앙은 그 뿌리를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긴 말씀이 많아야 합니다.

말씀 없는 열심 위험합니다. 불타 없어지는 공력이 됩니다.

② 기도

기도 없이 믿는 일 하면 즉, 하나님을 힘입어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게 됩니다.

기도 없이 말씀만 치우치면 신신학 위험

말씀 없이 기도만 치우치면 신비주의 위험

3) 내 믿음 잘 지키고, 다른 사람 믿음 살려야

① 우상 금지, 온전한 십일조, 주일 성수

- ② 전도 :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말로 전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서 착한 행실로 전도.
믿는 사람끼리 잘 협력함

4) 믿음과 행함

믿음

말씀에 입각한 믿음
믿음의 정절

행함

약 2:17 22

5) 공의와 사랑

6) 진실과 인내

이러한 신앙의 두 기둥들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와 복음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성전의 두 기둥 즉 신앙의 두 기둥인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마음과 부활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시대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들이 주님의 재림이 긴박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의 재림시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5. 주님의 재림시기에 대한 궁금증 3가지

궁금증 1) 과연 주님 재림의 때는 언제인가?

마 24:32~33

24:32 무화과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A.D. 70년에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면, 즉 국권을 회복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워 곧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신걸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였으니까 벌써 65년이 지났습니다.

65년 전에 문 앞에 이르신 주님이 이제 문만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과연 그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입니다.

궁금증 2)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나라가 복음화되지 않고 있는데 즉 많은 이슬람국가들 일본, 북한 같은 나라들,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 24:14

24:14 그 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전쟁 · 민주화 · 지진입니다.

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미군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② 북아프리카 튀니지를 비롯한 이집트, 리비아의 민주화 운동 즉 자스민 혁명. 독재자가 수십년간 복음을 막던 나라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개방되고 따라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③ 일본 인구가 약 1억 2천인데 기독교 인구는 1%도 채 안된답니다.

인본주의의 극치요 계시록의 666과 같고 창세기의 바벨탑과 같은 나라 일본이 9.0 지진 한 번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진 → 쓰나미 → 원전폭발

④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북한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개방하여 복음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복음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계속 쇄국으로 간다면 현대 국가에서 유래가 없는 3대 세습의 우상화 놀음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백두산 화산이 수년 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주목해볼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방향을 전쟁으로 돌리시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번역 : 전 세계 언어가 6900가지, 이 중에서 현재 2500개가 성경번역이 되었고, 1500개가 번역 진행 중이며 나머지 2000가지는 앞으로 15년, 즉 2025년경이면 번역이 완성될 것으로 예

상됩니다. -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

궁금증 3) 이스라엘 나라 700만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2% 밖에 안 된다는데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롬 11:25~26

11:25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구약시대엔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그 복음이 이방민족에게 나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화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불과 2~3%밖에 안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 나라가 복음화 되겠나? 하는 의문이 생기지요.

해답이 있습니다.

① 2007년 말에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가 15만 명인데, 언젠가 1,500명 그 후 언젠가는 15,000명. 그리고 2007년에 15만 명이 된 것입니다.

② 초대교회 때 사도 베드로가 전도 설교 할 때 하루에 몇 명씩 믿고 세례 받았습니까? 3천명, 5천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만 열어주시면 이스라엘이 복음화 되는 데 몇 날 안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되 내가 오래 오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애 중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마음과 부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두 기둥을 잘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6. 이 시대 우리가 세워야 될 신앙의 두 기둥

1) 주일성수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이 정도하면 되겠지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으로 오늘날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날 산에 나무하러 갔던 사람 돌 맞아 죽었습니다.

민 15:32~36

느헤미야시대는 안식일날 24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 걸고 장사하는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느 13:15~21

주일 성수의 정도는 바로 우리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정도가 주일성수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거창에 살던 배추달 집사님은 공산군이 주일날 일

시키는 것을 하지 않고 죽임 당했습니다.

주일 성수 신앙으로 순교하신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아울러 온전한 십일조를 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2) 복음전도

예수님의 명령이요, 부탁입니다.

마 28:18~20

행 1:8

살전 2:4

예수님 자신도 이 일, 바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막 1:38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큰 것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7. 결론

솔로몬이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듯이 우리도 신앙의 두 기둥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재림 대망하는 마음과 부활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온전한 십일조와 우상숭배를 금지하여 내 믿음의 기둥을 잘 세우고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잘 도와서 그들의 믿음을 잘 세워주는 기둥도 잘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 궁금증 :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세 7년 대환난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대환난 기간이 된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시대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가 되었고, 지구 한편에서는 핍박으로 인해 믿음 생활 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마 24:20~22

24:20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21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2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재림이 임박할수록 믿는 일 때문에 살기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재림 대망하는 마음과 부활소망을 가지고 주일 성수하며 복음 전도하는 신앙의 두 기둥을 크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믿음 지키다가 죽겠다는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일상 생활(사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림이 임박 하였으니 하던일 중단하고 교회에 기도원에 모여 기도만 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던일 그대로 해야됩니다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을, 직장인이면 회사일을, 사업하는이는 사업을 그대로 해야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욱 열심히 그일을 해야합니다.
나를 위하던데서 돌이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 재림대망 부활소망 ※

- 1) 주일성수 (하나님 사랑)
- 2) 복음전도 (사람 사랑)

※ 결사각오 진리사수 ※

7. 주일 성수

<성경 본문> 히 4:1~13

4:1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 동안에 너희 가운데 혹 누군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자.

2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나, 사실은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4 어디에선가 제 칠일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자신의 모든 일을 쉬셨다.”

5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6 이처럼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 있지만, 먼저 복음을 전해 받은 자들은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7 그래서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한 날을 오늘이라 정하시고, 오랜 시간 후에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8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9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다.

10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셨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써야 할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동일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12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낸다.

13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으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청산해야 한다.

차례

1.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킴
2. 신약시대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킴
3. 주일의 의미
4. 주일성수 방법
5. 주일성수 사례
6. 주일을 범하면

1.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킴

1) 안식일을 주심

창 2:1~3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즉,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안식하시고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심

신 5:12~15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심

2) 안식일 준수 명령

출 20:8~11 십계명 중 제 4계명

출 31:12~17 언약의 표징

3) 안식일 준수 사례

출 16:21~27 만나를 얻지 못함

느 13:15~22 성문을 걸어 잠금(장사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2. 신약시대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킴

1)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마 28:1~6)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세계와 안식을 주셨기 때문. 부활은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와 세상을 이긴 승리의 능력인 것임.

2) 성경이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

히 7:18

7:18 이전의 계명은 언약하고 무익하므로 폐지되었는데,

주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의문과 의식과 증서를 폐하고 도말한 것임.

골 2:14~17

3) 삼위 하나님이 합동하여 은혜를 주신 날이기 때문

성자께서 말씀을 주신 날(요 20:19~23)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행 2:1~4) 오순절 성령 강림

성부께서 계시를 주신 날(계 1:1~10)

4) 초대교회(사도시대) 때부터 주일을 지킴

행 20:7 안식 후 첫 날에

고전 16:2 매주일 첫 날에

5) 주일성수 신앙은 믿음의 잣대(척도)이기 때문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과 주의 재림과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이 도래함을 믿는 믿음이 표현되는 것임 (출 31:13 표징)

말세로 갈수록 주일 성수 신앙이 흐려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반증인 것임(약 2:22)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가 주일 성수로 표현되는 것임.

히 4:8~9 영원한 안식을 바라봄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이 끝장난다고 생각하고 결사 각오한 주일 성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3. 주일의 의미

영과 육의 안식을 누리는 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육신도 휴식하므로 6일간 일 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재림과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증거의 날

4. 주일 성수 방법

주일에 해야 할 일

하나님 섬기는 일 : 예배, 기도, 찬송, 성경읽기, 성경교육, 헌금, 교회봉사.

주일에 할 수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 전도, 문병, 문상, 재난대처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출 20:8~11 일하지 말라
느 13:15 사고 팔고
사 58:13 오락, 자기를 위하는 일
결혼식, 회갑, 돌잔치, 동창회 등

5. 주일 성수 사례

청교도
영국 청교도들이 칼빈의 주일 성수 신앙을 본받아 믿음을 지켰다.
박해가 심하여 미국으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주했다.
교회, 학교, 집의 순서로 건물을 지었으며 지금의 번영을 이루었다.

에릴 리틀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으로 영국 육상 선수이다.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결승에 올라갔는데, 결승이 주일이어서 불참을 했다.
국민들에게는 조국의 배신자, 편협한 신앙인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400m 계주 선수 1명이 부상을 당해 대신 평일 경기에 출전했고, 금메달을 땀다.

배추달 집사

6.25 때 북한 공산군이 주일날 일 시키는 것을 거절하여 순교를 했다.

6. 주일을 범하면

민 15:32~36

사형 당할 죄라고 생각해야 함

광야 생활 때 ‘만나’를 주시지 않음

출 16:25~27

나라가 망할 죄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

우상숭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 의지한 죄, 안식일을 범한 죄(겔20:1~39)

8. 별을 내 가슴에

<성경 본문> 단 12:3

12:3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차례

1. 전도를 꼭 해야만 되는가?
2. 전도인의 자세
3. 전도의 방법
4. 조심할 일
5. 전도의 유익
6. 결론

1. 전도를 꼭 해야만 되는가?

- 1)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셨습니다.

막 1:38~39 공생애 3년 반 동안 사람을 찾아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막 3:13~14 제자들을 훈련시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 2) 주님의 지상 최후(최대) 명령이자 간곡한 부탁(살전 2:4)입니다.

마 28:18~20 모든 족속

행 1:8 땅 끝까지

3) 구원은 전도를 통해서 얻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고전 1:21 전도의 미련한 것

롬 10:13~14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고 믿을 수 없다.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 받은 것입니다.

4)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롬 1:14~15 복음의 빛진 자

겔 33:2~3 파수꾼 (사 56:10 소경, 병어리개)

5)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왕하 7:9 문둥이

고전 9:16 부득불

6)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사 52:7 산을 넘는 발

본문 궁창의 빛, 별과 같이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숙 썩이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 대화를 한다. 용돈을 드린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 전도입니다.

마 22:37~39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요긴한 것이 전도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요,

은사가 아니고 의무(사명)인 것입니다.

전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2. 전도인의 자세

1) 기도와 말씀 전파와 사랑의 수고와 희생 - 이 세 가지가 병행

(1)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① 성령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고(뿌리고) 물을 주는 것까지만 할 수 있고, 믿게(요 3:5)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성령)이 하십니다(고전3:6)

고전 2:9~10 사람이 자기 스스로 믿을 수 없다. 성령이 하는 것

②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고전 3:9)

③ 기도는 어떻게

몇 사람을 정해놓고 전도될 때까지 기도 : 남편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의 전교인 1인 전도 운동.

순간기도 : 노방 전도 할 때(느2:4~5)

(2) 말씀전파가 필요

① 핵심 : 예수/구원

고전 2:1~2 십자가

② 요 4:28~29 와보라 탄방교회로

(3)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선물, 편지, 문자, 명함) (고전 9:23)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버림 (고전 9:12)

한 사람이 전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말씀 전파와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2) 사람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아야

(1)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① 모든 족속으로

민족과 종족,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함 (눅 9:26)

② 선입견을 가리지 말아야

안 믿을 것 같다, 무섭게 생겼다, 가난해 보인다, 무식해 보인다, 병들고 장애인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등

(2) 때를 가리지 말아야

세상 끝날 때 까지 :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다하는 날 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말 것.

행 9:19~20 즉시 (사도 바울)

요 4:28~29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

(3) 장소를 가리지 말아야

땅 끝까지 : 나라와 지방을 가리지 말 것, 회사에 있든 길을 가든 동네에 있든

3)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 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 ② 믿는 사람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막 8:36~37 천하
- ③ 안타까운 심정으로
겔 6:11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대연각 화재 때)
- ④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눅17:9~10)

4) 자신의 생활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가야

마 5:13~16 빛과 소금 역할을 잘해서 착한 행실
눅 3:10~14 무리, 세리, 군병

5)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시 126:5~6 눈물

복음 전하느라 겪는 고난 때문에 흘리는 눈물
전도 대상자를 위한 간구의 눈물, 조급한 마음으로 금방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말고 받는 사람들의 냉담함을 견뎌야 함
피하고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대적하는 모습, 그러나 이것이 내 자신의 예전 모습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함

3. 전도의 방법

1)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

생활 속 전도

가족, 친구, 친척, 이웃주민, 직장동료

직업을 통한 전도

직장, 사업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함 활용)

노방 전도 (전도지 활용)

전교인 1인 전도 운동

2) 믿는 형제를 도와주고 서로 협력함

4. 조심할 일

인격모독적인 언사로 상대의 자존심을 자극하지 말 것,

타 종교를 비방하거나 동조하지 말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증거 할 것,

혈기를 다스릴 것, 단정한 복장과 웃음 띤 얼굴, 상냥한 말씨로 다가갈 것

5. 전도의 유익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며 담대함을 얻고 은혜에 감사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준다.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무서운 사람을 붙잡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별 같이 빛날 상급을 쌓게 된다.

6. 결론

1960년대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고재봉씨가 사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전도한 사람이 무려 1800명이랍니다.

그의 고백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가 사건을 일으키고 사형 당하기까지의 기간이 만 5개월입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몇 개월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마 24:32~33 이 말씀이 주후 70년에 없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면 예수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였으니,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 길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세월을 아껴야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하러 간 신발 만드는 회사 직원이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전부 신발을 벗고 다니듯이 우리의 거리에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 믿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시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마 19:26)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묵은 땅

을 기경해야 되는데, 그 중에 잘못된 습관(잘못된 의식)을 고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왔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다, 믿음 좋은 분만 하는 것이다,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해서 내 믿음만 잘 세우면 된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이제부터 잘못된 의식의 껍질을 벗어버립시다.

솔로몬 성전의 낭실 앞에 보아스와 야긴(왕상 7:21)이라는 두 기둥을 세웠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두 기둥을 세워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믿음의 기둥을 굳건히 세우고, 또한 사랑과 전도로 다른 사람을 믿게 하고 그 사람의 믿음 성장을 도와주는 기둥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며 전쟁도 불사하시기에 이라크전 같은 전쟁도 발생한 것이며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월남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하신 구원 사역에 우리 성도들은 전도와 선교로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은 세상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시록 6장의 검은말이 이미 활동하여 한재,홍수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기근과 경제 침체로 사회가 혼란하며 물가가 치솟고 국가,기업,가정들마다 빚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황색말 운동인 타협과 혼합주의가 일어나 진리와 비진

리, 영의 운동과 육의 운동, 천국 운동과 세상 운동, 신비주의와 인본주의를 섞어나가는 일과 정통을 가장한 이단들의 적극적인 활동, 경험과 전통을 무시하는 탈전통시대, 동성애가 합법화 되고 세상 풍속이 교회에 들어오는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사3:1~5).

이러한 때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성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겔 22:30)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되십시다.

9. 향유헌신

<성경본문> 요 12:1~8 눅 7:36~38

요 12:1~8

12:1 유월절 육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2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3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4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5 “왜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6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므로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7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가 내 장례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8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눅 7:36~38

7:36 바리새인들 중 하나가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자고 하니,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 자리에

앉으셨다.

37 마침 그 마을에 사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38 그 여자가 그분의 등 뒤쪽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발랐다.

차례

1. 향유 헌신 비교 도표
2. 향유는 어떤 것
3.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4.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향유를 바칠 수 있는가?
5. 향유 헌신의 결과

1. 향유 헌신 비교 도표

기록된 성경	요 12:1~8, 마 26:1~13, 막 14:1~9	눅 7:36~50
때	공생애 말기	공생애 초·중기로 추정
장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예루살렘에서 5리)	바리새인 시몬의 집 (지역은 알 수 없음)
헌신한 사람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	죄인인 여자 (이름 모름, 세리나 창기 같이 죄인 취급 받음)
헌신한 물품	삼백 데나리온 가치의 향유 한 옥합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 한 옥합 (양은 모름)

헌신한 방법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 발까지 흘러내림 (머리와 발에 부음) (머리에서 발까지 부음) 발을 머리털로 닦음	예수님의 발에 부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맞춤)
헌신한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함	예수님을 믿으므로 자기의 죄를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
사람들의 반응	가롯 유다가 돈을 허비한다고 불평함 (제자들이 따라서 불평함)	바리새인이 비방함 (죄인 여자를 가까이 한다고)
예수님의 평가	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기념하라	죄를 더 많이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함(롬 5:20)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 시켜주심

향유 헌신 기록은 4번, 실제 헌신은 2번, 헌신한 사람은 2명

2. 향유는 어떤 것?

1) 본문의 향유는 가격이 300 데나리온 이상 되는 순전한 나드유한 근임.

한 근 : 한 리트라 : 340g (종이컵 2개 분량)

나드유 : 나드 뿌리에서 채취한 최고급 향유

한 데나리온 - 장정하루 일한 품삯(8시간)

300 데나리온 - 장정 한명이 300일 일한 품삯

(즉 1년치 월급, 이만큼 저축하려면 5~10년 걸림)

2) 오늘의 우리가 예수님께 바쳐드릴 향유는 어떤 것?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고 대비하고 기다려야 함(재림 신앙)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함(눅2:25~39)

마 24:32~33 무화과 나무의 비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즉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각오로 사는 믿음 (진리를 사수하는 신앙 : 순교적인 삶)

신앙의 기본을 지킴 : 우상 금지, 온전한 십일조, 주일성수

3선을 넘는 신앙 : 물질선 → 인정선 → 생명선

마 24:9~10 21~ 22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나로 인하여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생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 전도)

마 28:18~20 전도

마 5:13~16 빛과 소금

시 69:6 나를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하는 일

내가 전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기 때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도임.

3.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TV 설교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께서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모르고 향유를 헌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 해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해 한 것이다. 기념하라.”(막14:8)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4번씩이나 들었지만 아무도 그 말씀에 착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으며 또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체험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 마음과 몸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희생과 헌신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고귀한 신앙인 것입니다.

4.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향유를 바칠 수 있는가?

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많이 깨달아야 한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 잠시 후면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주님.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주신 은혜. 지옥 멸망을 면해 주신 은혜.

②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

본문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기회는 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기회는 단 한번 뿐입니다.

기회를 잃고 통한의 눈물을 흘린 사람
히 12:16~17에서
다음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
행 24:24~25 벨릭스 총독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비교하다 망한 사람
행 5:1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기회가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의 감동 (말씀이 생각나고, 양심이 동할 때),
설교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을 때
성도들이 권할 때 (자극을 줄 때)

5. 향유 헌신의 결과

예수님이 알아주심,
현세에서 평안과 형통함을 주심,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심.

찬송가 211장(통합 346) 둘째 단의 ‘막달라’를 ‘베다니’로 고쳐야 함.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무심결에 하는 신앙의 행위들 중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늘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10. 나중에 후회할 일 하지 마라

<성경 본문> 삼상 25:18~31

25:18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이백 덩이, 포도주 두 가죽 부대, 요리된 양 다섯 마리, 붉은 곡식 다섯 세아, 건포도 백 뭉치, 그리고 무화과 이백 뭉치를 가져와 나귀들 위에 싣고,

19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앞서 가거라. 보아라, 나는 너희 뒤를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20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의 으스스한 곳으로 내려가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여자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그 여자가 그들을 만났다.

21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광야에서 지켜 그의 소유 중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한 것이 참으로 헛일이었다. 그는 선을 악으로 내게 갚는구나.

22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내라도 내가 아침까지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23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24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내 주여,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귀에 말씀드리겠으니,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25 내 주께서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그의 이름과 같으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여종인 저는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26 이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고, 당신도 살아 계시거니와,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죄와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으셨으니,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께 악을 행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27 이제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시고.

28 당신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로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해 견고한 집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의 일생 동안 당신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9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을 추격하여 목숨을 노린다면, 내 주의 목숨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 보자기에 싸여 있겠고,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은 그분께서 무릇매로 던지듯이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30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께 모든 선을 행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우실 때,

31 내 주께서 까닭 없이 피를 흘리거나 친히 보복하였다 하여 주께서 슬퍼하거나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주의 여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2009년 7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때의 일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물러났다.

청와대는 그 후임자를 정하고, 국회에서 이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었다.

검찰에서는 관례에 따라 후보자의 선배들과 동기들이 다 물러났다.

그의 재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이에 대한 해명 또한 거짓말이 이어졌다.

어느 기업인과 친밀하게 지내며 그의 후원을 받은 일(이른바 스폰서)이 포괄적 뇌물죄 적용 단계로 번지고 있다.

청문회장의 어느 국회의원의 말씀 “후보자께서는 고위직이 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셨나봐요”

이 말을 들은 후보자는 더 건디지 못하고 공직 사퇴를 하였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다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발 소유의 양 떼를 지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병사들을 먹일 양식을 도와달라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다윗이 나발을 치려고 출전한 것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알고 급하게 다윗을 찾아옵니다.

“내 주 다윗이여 친히 복수의 피를 흘리지 마소서, 훗날 왕이 되신 때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소서.”

1. 신앙인의 생활은 미래를 품은 현재이어야 합니다.

인생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먹기는 곱감이 달다고 뒷일을 생각지 않고 당장 좋은 것만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 늦었어라고 할 때가 바로 그 일을 시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관습을 미루지 말고 지금 고쳐야겠습니다.

마 6:34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그 날 그 날에 충실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말아야 합니다.

1)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황무지의 굴에서 낮잠 자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 옷 자락만 베었습니다.

또 한 번은 십황무지 진에서 자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잡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사울을 다윗은 살려줍
니다.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삼상 24:19

24:19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하
다.

2)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원수를 맺는 일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
다.

갈 5:20~21

5:20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 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21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
게 경고한 것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3)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 두 집안의 원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고 대를 이어가므로 인해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4) 형제와 불화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마 5:21~26

5:21 “옛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른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네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네 형제가 네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네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25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네가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빨리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그 재판관은 교도관에게 내주어 결국 네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26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된 것을 풀기 위해 십자가

에 죽어주셨습니다.

3. 뇌물 받지 말아야 합니다.

1) 뇌물 : 어떤 직위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 유익을 위해 주는 돈 또는 물건, 접대(향응)

신 16:19(출 23:8)

16:19 너는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얼굴을 보아주지 말며,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로운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니,

뇌물 받지 말고, 뇌물 주지 말고, 아첨 하지 말고,

뇌물은 여러 사람에게서 받는 경우가 있고 서두에 예를 든 경우와 같이 소수의 사람에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물과 선물의 구분이 모호한 것은 뇌물로 보아야 합니다.

이 한 말씀만 실천하면 그의 공직생활과 직장생활, 사업이 길게 갑니다.

2)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또는 자녀 학교 때문에 위장전입 한다면, 작은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위반 범칙금 내면 아내에게 혼납니다.

벤전 2:13

2:13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 복종하여라. 권세를 잡은 왕에게나,

4. 정도를 걷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대하 27:6

27:6 요담이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바른길,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사랑으로 살면 점점 강해집니다.

11. 술 먹지 마라

<성경 본문> 잠언 23:29~35

23:29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슬픔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툼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평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까닭 없이 상처를 입는가?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는가?

30 술에 잠긴 자들에게 있고 혼합주를 찾아다니는 자에게 있다.

31 술잔 속의 포도주가 붉게 빛나고 순하게 내려갈지라도 너는 포도주를 보지도 마라.

32 결국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쏘 것이며

33 네 눈이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고 네 마음은 허튼 소리를 하게 될 것이며,

34 너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것 같으며,

35 네가 말하기를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쳐도 감각이 없으니, 내가 언제나 깨어날까? 깨면 또 술을 찾아야지.”라고 할 것이다.

1. 술의 종류

술 : 에틸 알콜 성분이 포함되어 마시면 취하게 되는 음료.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포도주, 맥주, 소주, 위스키, 막걸리, 과일주, 약용주, 샴페인 등)

술과 유사한 것 : 담배, 마약 등

취하는 것(폭 빠지는 것) : 취미, 오락, 특기, 일, 돈, 지식, 명예 등, 즉 나는 ○○ 없으면 못 살아하는 그 대상

2. 술의 폐해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다음은 술이 술을 먹고, 결국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정신을 잃고, 이성을 잃으며 인사불성이 된다.

알콜 중독자가 되고, 폐인이 되며 가정이 파탄난다.

3. 술 취함의 정도

우리 몸의 알콜 분해 능력 : 술이 몸에 들어가면 알콜 성분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 48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므로 2~3일에 한 번씩 술을 먹는 사람은 사실상 늘 술에 취해 있는 것이다.

술 취함의 분량 : 한 병 마시면 한 병 만큼 취하고 한 모금 마시면 한 모금만큼 취한 것이다.

조금 마셨다고 안 취한 것이 아니다.

4. 음주자의 핑계

1) 적당 음주 : 적당히 마시는 것은 괜찮다.

엡 5:18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핑계

술 취함의 정도를 잘못 이해한 것.

2) 양심 음주 : 자기 양심대로 해라.

롬 14:20 만물이 다 정하니 거리낌 없이 먹으면 괜찮다고 핑계
보통 양심이 아닌 신앙 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상황 음주 : 좋은 일이면 마셔도 된다.

딤후 4:4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므로 버릴 것이 없다고
평계함

금욕주의를 경계한 말씀을 오해함.

4) 자유 음주 : 먹고 마시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요 2:11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고 핑계

구속 운동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변화의 운동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적을 베푸신 것이지 예수님이 드시려고 한 것은 아니다.

5. 성도가 술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된다. 한 모금도 안 된다.

술을 먹는 것, 술을 만드는 것, 술을 파는 것, 술을 주는 것(선물),
모두가 안 된다.

6. 성도가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

1) 성경말씀이 금하고 있다.

본문 31절 먹는 것은 고사하고 보지도 말라고 하셨다.

엡 5:18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다

사 55:2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팔아 주지 말라고 하셨다.

2)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

고전 3:16~17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저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 듣고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3)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

벧전 2:5, 9

레 10:8~11 제사장은 성전 봉사기간 동안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성도는 믿는 그 순간부터 소천하는 시간까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4) 성도는 평생 나실인이기 때문

민 6:2~4 나실인의 서원을 한 자는 그 기간 동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삿 13:4~5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평생 나실인으로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도는 평생 나실인입니다.

5) 술을 마시면 위대한 신앙인도 실수하게 됩니다.

창 9:21 노아

홍수 심판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신앙인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하였습니다.

창 19:32 롯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중에 유일하게 구원 받은 롯이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 딸들로 죄짓게 합니다.

7. 성도의 사회생활과 술

사회조직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신앙인이 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학생은 교수와의 관계에서, 직장인은 동료와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되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마 10:16

진리는 정조와 같아서 한 번 무너지면 다시 바로 잡기 매우 어렵습니다.

8. 결단해야

단 1:8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의 제물이 섞여 있을 우려가 있는 왕의 진미 먹기를 거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은 신앙으로 승리하고 현세에서도 큰 복을 누립니다.

우리도 결단을 합시다.

12. 의인의 간구

<성경 본문> 욥 42:1~10

42:1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2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3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게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 습니다.

4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5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뵈 습니다.

6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 합니다.”

7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진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8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숫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너희의 어리 석은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

9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파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10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두 배로 더해 주셨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의인이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역사하십니다.

약 5:13~18

5:13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라.

14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15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16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17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삼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18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의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의 죄를 찾아내어 회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1. 회개하는 사람

욥기 1:8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인데도 그에게도 회개할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1~6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 ① 자기의 숨은 의를 회개 :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는데, 사랑을 베풀며 살았는데,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의’를 회개
- ②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인 내가 다 알려고 한 월권행위를 회개
- ③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을 회개 : 사람은 의로운 것 같아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단을 통하여 부패성을 빼내어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야 한다.
- ④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무지한 말을 함(하나님의 치심, 생일저주, 죽기를 원함)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 말, 생각으로 짓는 죄와 허물을 찾아 회개해야 한다.

마 5:27~30

5:27 ‘간음하지 마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서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

29 만일 네 오른쪽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던져 버려라. 네 지체 중의 하나를 잃고 네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30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던져 버려라. 네 지체 중의 하나를 잃고 네 몸 전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우리의 삶에서 죄와 허물된 것을 하나 하나 찾아내서 용서를 빌

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2. 다른 사람 위해 고민하는 사람

①본문 8절 중반절에 보면 내 중 읍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읍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을 사과하고 읍과 함께 번제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즉 남에게 죄를 지었을 때, 또는 나로 인하여 나의 말로 인하여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들 염려가 있을 때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마 5:21~26

5:21 “옛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른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네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네 형제가 네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네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25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네가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빨리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그 재판관은 교도관에게 내주어 결국 네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26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②또 본문 10절에 욥이 자기 친구를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 18:21~22

18:21 그때에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하니,

2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해 주어라.”

③예수님의 고민

마 26:36~39

26:36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겔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38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39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으려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
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우리 인간이 죽음에 이를 때 많은 고통을 당하듯이 하나님으신
예수님도 한편으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고민하시기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민은 그런 차원의 고민이 아닙니다.

오로지 흠 없는 제물로 온전히 바쳐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
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에 겪는 고민입니다.

구원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어야 될 죽음
의 고통을 모두 다 당하시는 고통인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의 고통, 우리 모두가 당해야 될 죽음의 고통
들을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이요 고민이신 것입니
다.

④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가장 고맙게 여기고 평생
잊지 못할 은혜로 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하여 죽어 주신 이가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숭고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
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
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려운 친구를 도와준다. 위로해준다. 친구의 고민을 들어 준다 등.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의 행위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를 몰라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을 전도하여 살려내는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고민하는 우리가 됩시다.

3. 결론

나의 죄를 찾아 회개하며 다른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 고민하며 말로써 우리의 착한 행실로써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찾아 회개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맨 손으로 고아원을 만들고 몇 만 명의 고아를 키워내고 그의 평생 동안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회개와 다른 사람을 위한 고민에 있습니다.

13. 독도

<성경 본문> 수 1:1~11

1:1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4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곧 헛 족속의 모든 땅과 해 지는 쪽에 있는 대해까지 너희의 지역이 될 것이다.

5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아무도 네 앞에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6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שמ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네 길에 평탄해질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9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10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했다.

11 “너희는 진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여라. 이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하여라.”

1.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토의 경계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그리고 이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이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들이 거할 나라와 영토를 정해 주셨습니다.

행 17:26

우리 한민족에게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와 하늘과 바다를 주신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인데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바로 그 부속도서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독도 문제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2. 독도는 어떤 곳인가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위 치 :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

거 리 :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경북 울진군 죽변에서 동쪽으로 216.8km

구 성 :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과 작은섬들로 됨

면 적 : 총 187,453㎡ (약 6만 평)

높 이 : 168.5m (서도)
 시 설 : 선박 접안시설(동도) 및 등대
 경 비 : 해양경찰경비대
 역 사 :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신라에 복속시킴 (삼국사기, 삼국
 유사)
 자 연 환 경 : 화산섬
 바다의 깊이 : 2,000m
 거 주 민 : 김성도 · 김신열 부부가 1991년부터 서도에 거주

3. 독도가 갖는 의미 (우리에게 주는 유익)

1) 우리나라 영토(영해)를 확장시킴

독도는 18만㎡의 영토를 확장해주며, 섬 주변 바다를 우리나라 영해로 만들어 줍니다.

국제해양법상 인정되는 영해는 12해리(22km)로서, 독도를 중심으로 바다 위에 반경 22km의 원을 그리면 그 안의 바다가 우리나라 것이 되는 것임.

이것을 육지로 비교하면 대전시 면적의 2~3배가 되는 면적임.

2) 자원의 보고임

① 수산자원

② 관광자원

③ 해저광물자원 : 특히 GAS Hydrate가 우리나라가 30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이 해저에 깔려있다는 것임

3) 군사적 · 과학적 가치가 높음

GAS Hydrate (G.H)

- ① 고압저온 상태에서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고체상태의 가스, 즉 고체 천연가스임
- ② 상온에서 드라이아이스처럼 기화되어 메탄가스를 방출함
(메탄가스는 시내버스용 LNG의 주성분)
- ③ 연소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휘발유의 70% 정도로 적으며, 중금속을 배출하지 않음.
- ④ 1m³의 G·H로 172m³의 메탄가스를 생산
- ⑤ G·H가 있는 곳에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음.

4. 독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 잘 지켜야 됩니다.

- ①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됩니다. “먼 바다에 있는 작고 쓸모없는 섬이다.”, “내 개인의 것이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 ② 빼가지 않도록 잘 지켜야합니다.
느 4:9

2) 잘 관리해야 합니다.

- ① 개발 및 보존을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창 1:28
 - ② 팔아서 없애지 말아야 합니다.
왕상 21:1~3
- 알래스카 : 1867년 미국 국무부 장관 슈어드가 720만 달러에 러

시아로부터 사들임.

3)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① 우리나라 땅인 역사적 증거를 발굴해야 합니다.

② 전 세계에 홍보해야 합니다. 지리, 항공, 항해 관련기관 및 인터넷.

③ 외교적 노력

④ 국제법적 대처가 필요: 일본이 대내적으로는 교과서 등을 통해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의식을 자국민들에게 심어주고, 대외적으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시켜서, 결국에는 국제사법 재판소에 독도문제를 가져가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전략을 잘 파악하고, 장·단기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5. 국민의 일원인 우리 성도들이 할 일

시 127:1

127: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해를 입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 회개하는 기도와, 독도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길 간구하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됩니다.

14. 말씀으로 인도하심 (간증)

1. 주일 성수 실물 교훈

저의 부친 초상(92년 4월) 때 탄방교회 유영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큰 일을 치러 주셨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인사나 한 번 하자고 교회를 갔다.

그런데 그 후 계속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나의 신앙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베푸는 사랑이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이다.

그때 내 나이가 만 38세인지라 베테스다 연못가의 병자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내가 홀시아버지를 10년 동안 모시느라 고생했는데 동해 바닷가로 1박2일 여행이나 다녀올 생각으로 청주를 지나고 제천을 지나 영월 쪽으로 신나게 가고 있는데 앞에 가던 차들이 서는 것이 보였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몸이 의자 밑으로 들어갈 정도로 힘차게 밟았다.

그러나 쿵 소리가 났다. 들이받고만 것이다.

내 차가 앞차를 치고 앞차는 치인 충격으로 그 앞차를 쳤다.

토요일 오후였다.

차는 레카차에 끌려 보내고 우리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다.

그 후 몇 달이 지난 어느날 포항에서 대전으로 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늦은 점심으로 자장면 한 그릇과 100원하는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때가 바로 “처음 사랑”때이다.

어찌 그리 맛있고 고맙던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출발해서 올라오는데 영동에서 옥천 사이 어디쯤인데, 터널을 들어서는 순간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앞에 큰 벽으로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저절로 다리에 힘이 가해지며 팍팍 더블 브레이크가 밟혀졌다.

아무 소리도 안 났다.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앞에 버스가 서있는데, 거의 닿을락 말락한 상태였다.

지난번 사고가 주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해주셔도 못 알아듣는 어린이가 때니까, 실물 교훈을 시켜 주신 것이 분명하다.

2. 뇌물 받지 마라

이 말씀은 출 23:8과 신 16:19에 있는데, 나는 신명기의 말씀을 먼저 보았고 지금도 그 구절에 더 마음이 쓰인다. 웬지는 모르겠다.

우리 회사에 83년도 창설 멤버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근무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마 22:21 ‘가이사’의 것은, 이 두 말씀은 직장 생활하는 나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고 내가 애써서 지키는 말씀이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고 하는 말이 있다.

물론 내 인생 전체의 기간 동안 깨끗하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 거짓말이다.

신앙생활이 시작된 후로는 깨끗하게 살려고 나로 인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2008년 말에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추천한 이유가 일 잘하고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뇌물은 물론 인정상 관행적으로 인정

되는 수준의 것도 받지 않는다. 또한 주지도 않는다.

3무의 생활(뇌물, 짜옹, 거짓이 없는)하려고 늘 조심한다.

기술(Technical hands)은 회사를 발전시키고, 깨끗한 손(Clean hands)은 회사를 살린다.

3. 마음으로라도 죄짓지 마라

마 5:27~30을 보면 마음, 눈, 손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처음 사랑 때 주신 말씀이다.

직장 형편상 주말 부부 생활을 많이 했다.

89년 봄부터 99년 봄까지 무려 10년.

행위와 눈으로 죄짓지 말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도 간음, 원망, 비방 등 모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다.

사실 가장 쉬운 일이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다. 생각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실상은 제일 어렵다. 평생 동안 매일, 매 순간 다짐해야 될 일이다.

4. 아내를 살려주소서

16년 전 쯤 일이다. 아내가 중한 병에 걸린 것을 알았다.

신장 기능이 불과 얼마 밖에 남지 않은 만성신부전증과 재생불량성 빈혈.

인천에 근무하면서 소천하신 김형천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석암교회에 수요일예배만 참석하고 새벽기도는 집(셋방)에서 할 때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고 출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

아니 나는 쭉그러진 콩팔 새 것으로 바꿔주시고 골수에서 피가 펄펄 솟아나서 마누라 살려 주시길 기도했는데, 이 무슨 뜻인가.

큰 목사님 강해서를 펴보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해석해 놓으셨다. 그 후 8월 광주 기도원 교단 여름 사경회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 후 어느 날 유영길 목사님이 설교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해야 된다고 하셨다.

나는 히스기야왕을 15년 더 살게 해주신 것을 들어 기도하였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15년이 지나고 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이유를 달 근거가 없어졌다.

하나님은 나에게 공활을 베푸셨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5. 돈 많이 벌어 현금 할게요

오래 전 TV 광고에 “코스닥이 뭐예요?”하던 시절에 나는 주식을 했었다.

내 돈, 투자 받은 돈, 빌린 돈 합계가 역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배짱 한 번 좋았다.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다.

코스닥 한 두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잔고가 2배 정도 되었다.

하나님께 말씀 드렸다.

“돈 많이 벌어 현금 할게요.”

하나님께서서 회답하셨다. 시편 131편, 딤후 2장 20~21절 말씀.

“큰 일 할 생각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다.

아내의 성화가 빗발친다. 빌린 돈 갚으라고, 투자 받은 돈 해주라고, 아파트 중도금 내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다 빼 쓰고, 2천만 원 정도 남겨 주식과 펀드에 투자했는데,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엔 그 종목이 상장 폐지되고, 펀드는 부도나서 휴지가 되어버렸다.

서울 가있는 동안 주식을 가르쳐주는 비디오테이프를 사서 공부를 했다.

될 것 같았다. 아내에게 300만원을 빌렸다.

그런데 내가 사면 주가는 내려갔다.

이래저래 내 계좌는 깡통이 되었다.

6. 간증에 대한 나의 생각

신앙 체험한 일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기에 나는 평소 내가 늙으면 “평생 서리집사”라는 제목으로 책 한권 쓰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이제는 장로 안수를 받아서 이 제목을 쓸 수 없게 되어 글쓰기를 포기 했었는데, 작년 이 맘때쯤 이 책을 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원고들을 정리하며 기도했다.

간증은 자기의 신앙 체험을 남에게 말하거나 글로 전하는 것인 만큼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랑하게 되고 어떤 것은 축소하거나 생략하게 되고 어떤 것은 부풀린다. 심지어는 거짓말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연고로 신실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간증을 하지 않는 줄로 알고 있다.

그래서 간증을 듣거나 읽을 때 그에 폭 빠지지 말고 성경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해야 되는 것이다.

7. 비행기 한 번 타야 되는데

①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소망교회를 시무하시는 노대영 선교사님과 장정애 사모님과 우리가 교제한 지 15년이 넘었다.

그분들과 처음 만난 것은 노선교사님이 아나톨리, 블라디미르 두 분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였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샤샤가 교회 충성하는 모습도 보고 싶은데, 그분들도 우리가 한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 못 갔다.

가려고 계획하고 하다가 보면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② 미국 여행을 하게 될 것 같아서 10년짜리 비자를 해놓았는데 비행기 표를 한번 못 사고 10년이 다 되어간다.

비자 면접관이 물기를 결혼 한지 몇 년 되었느냐고 묻는다. 통역해주니까 알아들었다. “이십 몇 년입니다.” 약간 놀라는 기색이다.

직장생활한지 몇 년 되었느냐고 묻는다. “이십 여 년입니다.” 놀라는 표정으로 오케이란다.

③ 내가 처음 해외여행 할 때의 일이다. 지금은 인천공항이 있지만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태국 가는 비행기를 탔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으로 보내준 여행이다.

탑승해서 이륙하는 활주로까지 가는데 기내 TV에서 안전교육이 방송된다. 비상시 상황으로 산소마스크가 내려오고 사람들이 그것을 착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불안하다!, 공포가 느껴진다! 내가 왜 이러지?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눈 감고 자고 있다. 저절로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비행기는 땅을 박차고 날아 올랐다.

방콕에 도착해서 버스로 파타야까지 갔다. 호텔방에 들어서자 TV를 켜보았다.

화면에 태극모양 같은 것이 보인다.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국적 비행기 꼬리 날개에 그려진 로고였다.

안타깝게도 콤팩트 카메라 사고였다.

8. 못 찾은 원고

“비전을 버려라” 탄방교회와 서울 우신교회(김정경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청년부 특강 제목이다.

주제는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짝 차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그러므로 내 비전을 버려야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참 아쉽다. 원고를 찾을 수가 없다.

9. 가불땅이라 하지마라.

열왕기상 9:10~14에 “가불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3대왕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 재목을 많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솟공예가 히람을 보내서 솟기둥 둘과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솔로몬 왕이 갈릴리지역 20성읍을 두로왕에게 주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그 땅을 보고는 눈에 차지 아니하여 가불땅 즉, 쓸모없는 땅이라 이름하였습니다.

2010년 4월 직장에서 인사 발령이 있어서 대구 사무실로 내려왔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아내와 함께 내려가서 한 주간 근무하고 올라오곤 하였습니다. 회사도 집도 교회도 모든 면에서 대전에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왜 멀리 가게 하셨을까?

불만스런 생각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있는 그곳을 가불땅이라 하지마라.

2개월 정도 교회를 정하지 않고 새벽이나 저녁에 집 앞에 있는 강가로 또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 보곤 하였습니다.

15년전에도 대구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몇 달간 수요일예배를 대전에 와서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수요일예배 참석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 너만 잘 믿으면 되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길 오는 것이 부담이 되던 중이었는데.
그래서 다음주 부터는 올라오지 말고 대구에서 수요일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마음 먹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대가 같고 셋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찾아 새벽기도와 수요일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정배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좋은교회.
그로부터 오늘까지 3년 동안 저와 아내의 신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예배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보내셨을까? 생각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8:26~ 27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사람에게 붙은 귀신을 내어 쫓고 중풍 병자와 앉은뱅이를 고치며 전도 폭발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을 중단하고 가사로 내려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우선 직장동료들과 좋은교회 또 업무차 만나는 사람들...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

10. 아내의 대상포진

작년 9월초의 일이다.

주일 새벽 잠을 깨어보니 아내의 오른쪽 얼굴에 두드러기 같은 물집이 많이 생겨있다.

전에도 등쪽에 가끔 이런 일이 있었기에 요번에도 그냥 참아보기로 했다.

월요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대구로 내려왔다.

나는 출근을 하고 집에 있던 아내가 물집에서 진물이 나서 더 견디지 못하고 피부과 의원을 찾아갔다.

원장님이 어떻게 치료를 할까 궁리하다가 안되겠다며 소견서를 써주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셨다.

부랴부랴 연차 휴가를 내고 대전으로 올라와 집 가까이 있는 대학병원에 갔다.

그렇게 입원을 해서 10여일간 치료를 받았다. 신부전과 빈혈로 인해 약을 강하게 쓰지 못하고 수액 주사도 부작용이 나서 치료시간이 많이 걸렸다.

얼굴이 깨끗하게 전과 같이 회복되었다.

치료 시기를 하루만 더 늦었어도 큰 문제가 생길뻔 하였다.

눈으로, 코로, 귀로, 입으로... 얼굴에 온 대상포진은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된단다.

자기가 치료해 보겠다고 시간을 끌지 않고 “꼭 오늘중으로 큰 병원에 가세요.” 당부한 피부과 원장님 당신은 명의요 참의사입니다.

휴가를 배려해준 회사와 동료에게도 감사한다.

감당치 못할 위험한 상황-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고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병실을 찾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 누구는 맛있는 음식을 사오시고, 누구는 직접 만들어서 비를 맞으며 도시락을 싸오시고, 누구는 몸에 좋은 영양제를, 누구는 치료비에 보태라고....

걱정스런 마음으로 병실을 찾은 이들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병실을 나갔다.

이번 일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은 형제의 사랑을 먹고 자라난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주일 설교 말씀이 요한일서 3장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이셨다.

11. 태풍아 멈추어라

작년 8월 29일 태풍 볼라벤이 우리나라를 스쳐갔다.

25일 새벽부터 이 태풍을 놓고 기도했다. 주일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반 학생들에게도 기도하기를 요청했다.

풍속 50m/s, 반경 450km, 서해로 북상하여 웅진반도로 상륙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많은 피해를 내고 지나갔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으신건가? 그렇지 않다.

세력에 비해 피해가 적었다. 욕지로 상륙하지 않았다. 빠른속도로 지나갔다. 비가 별로 없었다.

내가 있는 대구에선 태풍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약했다. 이런 자연 현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12. 내 주먹을 믿지

내 군대 동기생(기술행정장교 5기) 중의 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서 몇 년간 근무한 적이 있었다.

우리 가족이 그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의 대답은 “.....내 주먹을 믿지” 였다.

그가 파키스탄 나라의 고속버스업체 관리자로 갔다. 근무를 쉬는 날은 끼니를 챙기는 것이 문제였다.

일요일에 교회 가면 점심을 준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갔단다. 그 일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완강하던 그가 그 낯선 나라에 가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게 될 줄이야.

그는 지금 중동에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가는 손님들께 복음을 전하며.

13. 천국에서 만나요

① 매여, 풀어, 주가쓰시겠다.

마가복음 11장 2~ 3절 말씀이다.

우리의 형제 한사람이 여러번 암에 걸려 수년간 고생하다 천국에 갔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주신 감동이다.

매여 : 세상, 일, 가족, 암, 죽음

풀어 : 고쳐서(살려)

주가 쓰시겠다.

처음에 위암이 발견되어 위를 많이 잘라냈다. 그 후 소장엔 전이되어 또 소장을 잘라냈다. 그 후 방광쪽에 또 암이 나타났다. 사경을 헤메고 있다.

가족들도 이젠 가망이 없다고 장례치를 각오를 했다.

남선교회 특별기도를 소집하였다.

눈물로 찬송을 부르고,

눈물로 기도하였다.

그의 몸에서 썩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고 가족들이 소식을 전해 주었다.

몇 달 후 또 암이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대장에. 병실을 찾아보니 그의 얼굴엔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 그는 시신을 의학연구용으로 기증하고 소천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줄 알고 그렇게 되길 바랐는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다.

대신 그의 아들이 신학을 시작하고 교육전도사로 일하는 것을 보고 그는 눈을 감았다.

② 이틀을 더 머무시고

사모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께 여쭙어 보았다. “우리 사모님 몸이 허약한 것 외에 다른 큰병은 없지요?”

2~3일 기도 했는데 다른 집사님이 소식을 전해 주었다. “사모님 건강이 많이 안좋으신 것 같아요.”

요한복은 11장 1~6 말씀이다.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들을 더 머무셨다.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로부터 일년 좀 못되어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 온몸이 통통 붓고, 잡숫지 못하고.... 고통이 심하셨다.

내 여름휴가를 원래 8월10일(수)부터 19일까지 내서 교단 여름 사경회 참석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웬지 날짜를 앞으로 당기고 싶었다. 그래서 8일(월)부터 휴가를 받았다.

금요철야기도 날이다. 남선교회를 비롯해 전 교인이 기도회 동참하기를 문자로 알렸다.

우리는 눈물로 기도했다. 사모님을 살려주시길.

주일 오전 예배 대표기도 순번이 내차례였다.

목사님 만류를 뿌리치고 사모님을 살려주시길 기도했다.

그러나 월요일(8일) 새벽에 사모님은 소천하셨다.

사모님도 하나님께 여쭙어 보셨답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존귀케 하려함이다.”

대표기도 때 생각했다가 못한 기도말이 있다.

“예수님 ○○○사모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14. 너만 잘 믿으면 되냐?

“가불땅이라 하지마라” 편에서 언급한 일입니다.

이 후로는 수요일에 대구에서 교회를 갔다.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이 때 벌써 장로 안수 받은 직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직원도 있었고, 멀찍이 있기를 주장하는 직원만 빼곤 다 갔다.

그러던 어느날 여직원 하나가 늦게 출근하였다.

은행과 우체국 업무를 위해서 가는 차중에서 무슨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때 내 머릿속에 이 여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남자 직원과 결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한 나 자신이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 남자 직원은 부인쪽의 문제로 이혼한지 몇 달 안된 사람이고, 애가 셋이나 딸린 막내는 백일이나 지났을까 하기 때문이다.

처녀가 애 셋딸린 남자와 결혼한다는 생각을 했으니 참으로 황당하고 미안한 일이다.

남의 비밀을 알고 말 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 본인도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아내에게 말은 하고 싶는데 할 수는 없고 꿈꿨다.

무슨 일인데 나한테까지 비밀로 하느냐는 아내의 책망과 투정에 말해주고 말았다.

그 후 그들은 결혼하여 자기들 애도 갖지 않고 세 아이 잘 키워내고 있다. 그 여직원의 말 “저 불쌍한 네사람 내가 희생해서 구

원시켜야 겠다.”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이렇게도 역사하신다.

 멀찍이 있기를 주장하던 직원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정년 퇴직을 한지 벌써 몇 년 지났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아내를 따라 교회 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집사 직분을 받았단다.

 장로님인 직원은 검사소장이 되어 바쁜 업무중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박사 학위도 받았다.

15. 에피소드

1. 내가 좋아하는 글자 “와”, 싫어하는 소리 “뿌지직”

1) “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십일 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전도명령 말씀이다.

사마리아 “와” 땅 끝까지에서

- ① “와”를 빼면 복음을 이스라엘 땅에만 전하라는 뜻이 되고,
- ② “와”를 넣으면 이스라엘과 온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된다.

이 아니 기쁘지 않을까. 이방인이었던 나(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와”자를 넣어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입은 우리여 감사하자.

2) “뿌지직”

얼마 전 노은 지구로 이사를 했는데 동네가 얼마나 조용한지 이웃 동에서 못질하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들리고, 벽에 걸린 시계의 ‘째깍 째깍’하는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소음으로 느껴질 정도다.

막 잠이 들려할 때 전화벨이 울리면 그것처럼 싫은 일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소음보다도 더 싫은 소음이 있으니, ‘뿌지직 뿌우욱...’ 그것은 바로 성경책에 달린 zipper 여닫는 소리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훌륭하고 웅장한 박물관이 있는데, 그 곳에는 황금으로 만든 성경책 조각 작품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성경책은 단혀 있는 것이라고 한다.

TV 뉴스를 통하여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둘 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펼쳐진 성경책에, 한 사람은 단혀진 성경책에 선서를 했다. 내 기억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사실이다.

단혀진 성경책, zipper 채워진 성경책. 내가 쓰는 성경책에도 zipper가 달려 있어서 그 손잡이를 떼어 내어 못쓰게 해놓았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 때 복통이 심하게 일어나서 성경책을 챙기지 못하고 집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누가 손잡이 없는 zipper를 용케도 채워 놓았다.

그 후 나는 zipper를 아주 떼어 버렸다.

열려있는 성경책도 읽지 않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인데, 하물며 zipper 채워진 성경책을 언제 열어볼 것인가.

서점에 가보고 도서관에 가보라, 세상의 수많은 어떤 책에 zipper가 채워져 있는가? 그런데 유독 성경책에만 zipper가 채워져 있으니 참으로 애통할 일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학생·성도 여러분, 성경책의 zipper를 떼어버립시다. 성경책을 펼쳐 놓읍시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펼쳐진 성경구절에 둥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며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2000년도에 중·고등부 문집에 낸 글임)

2. 요한복음엔 왜 말세장이 없을까?

4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말세에 대한 말씀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말세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다. 왜 일까?

내가 만약에 요한복음의 저자였다면 말세에 대한 기록을 쓰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마 사도 요한도 내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 해답은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본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A.D.85~90)후, 밧모섬에서 귀양살이 할 때(A.D. 95~96) 어느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시록을 썼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말세장 아닌가? 그러니 굳이 요한복음에 말세장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쓸 때, 그 후 계시록을 쓰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 말씀에 해답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딤후 3:16, 벰후 1:21) 사람이 임의로 쓴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리라.

3. 불 탄 냄새도 없었더라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 사드락(하나냐), 메삭(미사엘), 아벳느고(아사랴)가 느부갓네살왕이 두라 평지에 금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들은 믿음 지키기 위하여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 세 사람을 붙든 사람이

타죽을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불 가운데서 나온 그들은 몸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바지의 색깔도 변하지 않고 심지어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새벽기도를 가려고 아파트에서 나오니 나무가 탄 듯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 동네에서 탄내가 났습니다. 어디서 불이 났는지, 무엇이 탔는지 보지도 못했고 소식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 탄 냄새는 났습니다.

이때 단 3:27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를 도와 보호하시는 주님, 풀무불에 떨어진 성도들에게서 불 탄 냄새도 나지 않게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주님.

4. 내 이름 이야기

주민등록상 내 이름은 재학(在學)이다. 그러나 실제로 집에서 지은, 불리운 이름은 끝 자가 훈(勳)이다. 나라에 공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이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호적에 올리는 과정에서 면사무소 직원이 말로 전해들은 이름자를 잊어버리고, “학”자로 등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름 뜻이 배우는 사람이 되었다. 맞는 말이다. 공을 세우려면 먼저 배워야 될 테니까.

생년월일도 그렇다. 원래는 54년 음력 9월(양력 10월)인데, 56년 3월로 되어있다. 우리 동네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1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명만 제대로 되었고 나머지는 다 틀리게 되어있다. 그 친구의 부친은 우리 중학교 때 교감 선생님이셨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농사를 짓는 집 아들이었다. 우리는 아마도 6.25 전쟁이 끝나고 호적 일제 정리할 때 올린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 덕분에 직장 정년이 2년(정확히 1년 6개월)

이 늘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내가 갖지 못한 이름자를 집사람에게 불러달라고 했다. 나는 “훈”, 아내는 “현(玃)”. 그리고 그 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름을 물려주었다. 딸은 “현”, 아들은 “훈”.

5. 자격시험

① 내가 어떤 자격시험 1차에 합격한 것이 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2차 시험을 볼 생각을 하고, 책도 준비했다.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그 시험은 주일날 보는 것이다.

새벽기도 때 목사님 설교 말씀에 호세아 14장으로 기억된다. 이스라엘이 망한 죄는 세상 의지한 죄, 우상 섬긴 죄, 그리고 안식일 범한 죄이다. 본문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안식일 범한 죄는 기록이 없는데 굳이 말씀하신다. 가슴이 뜨끔했다.

② 중고등부 오전예배 시간에 내가 맡은 반 학생 한 명이 “반장님 저 다음 주일날 못 와요.”한다. “왜?” 물었다. “시험 보러 가야되요.” “무슨 시험?” 무슨 무슨 자격 시험이란다. 말문이 막혔다.

③ 월요일 새벽 고속도로를 달려 사무실로 출근하는데 극동방송을 들었다. 어느 목사님 설교 말씀이다. 교회를 증축하려고 설계사무소에 일을 맡겼더니, 늙수그레하고 실력도 없어 보이는 설계사(건축사 자격은 없지만 실력은 똑 소리 나는)에게 일을 맡기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은 연세도 있으신데 어찌하여 건축사 자격이 없소”라고 물어보셨다.

그러자 “주일날 시험 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신자라 보지 않았다.”

건축사 자격이 있으면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을 낼 수 있고, 골

프도 치고, 사회 저명인사 대열에도 들어간다. 서울 일류대학을 나온 그가 주일날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지 않고 평생 월급쟁이 하고 있다.

“항복”,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 항복했다. 운전대를 놓고 두 손을 들었다.

6. 직장 행사

30년 직장생활에 아쉽고 안타까운 것 딱 한 가지가 있다.

지금은 주5일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회사의 행사도 주일날 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옛날엔 회사가 단체행사를 1년에 한 번 정도하는데,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이라야 했다.

그 시절 우리 회사의 회장님은 우리들끼리 말할 때 옛날의 왕보다도 더 힘 있다고 할 정도이신 분이였다.

“주일날이기 때문에 나는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말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별렀지만 못하곤 했다.

세월이 가니 그 막강하신 분이 돌아가셨다.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 너무도 애쓰신 분이었는데...

그 분 생전에 “주일” 말 한마디 못한 것이 너무도 후회스럽다.

7. 맛있었는데

나도 한 때는 맛있다는 음식 찾아다니며 먹기를 좋아했다.

그 덕에 허리띠 길이가 많이 늘었을 터.

10년 동안 주말부부 생활하면서 한 번도 내 손으로 식사를 해 먹지 않았다. 아침은 국밥집, 점심은 회사에서, 저녁은 또...

선지국밥, 순대국밥 구수하고 맛이 있다.

한 번은 저녁에 시장한지라 급히 빠다귀탕(감자탕)을 먹다가 어
금니 하나가 깨져서 금니를 한 적도 있다.

그런데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고민이 생겼다.

그래서 선지는 빼고, 순대는 빼고, 머리고기만 이렇게 해보았다.

그래도 찹찹했다.

그래서 아예 메뉴를 바꿨다. 선지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였다.

왜, 피는 그 생명체의 근원이니까.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
았으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 기도 꺼림
칙해서 어디 할 수 있겠나!

우리 성도들 때문에 문닫는 식당, 회사 많을 것이다.

술, 담배, 선지를 안먹으니.

행 15:29 (창 9:3~6, 레 17:10~14, 신 15:23)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 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 지니라.

16.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성경 본문> 롬 16:3~5상

16: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라.

4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5 또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라.

1. 생활

1) 근면성실한 사람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감

2) 부부가 잘 화합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림. 직업과 믿음 생활 모든 면에서 서로 잘 화합.

3) 믿는 일을 첫째로 한 사람

①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잘 협력함

사도 바울이 하나님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인정함

② 말씀에 착념함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줌

2. 믿음 : 3선을 넘은 신앙

1) 물질선을 넘은 신앙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바침 (본문 5절 상)

2) 인정선을 넘은 신앙

사도 바울을 따라 자기의 거처를 옮김

행 18:18~19

3) 생명선을 넘은 신앙 (본문 4절)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할 때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지켜줌

3.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1) 순교적인 삶(순교적인 신앙)

물질선을 넘고, 인정선을 넘고, 생명선을 넘는 신앙.

목숨을 주님께 바쳐놓고 사는 삶. 목숨을 바친 사람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2)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의 입술과 착한 행실

3)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

계 22:20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어서 오시옵소서 ,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나는 이 부부를 좋아한다. 우리도 이 부부를 닮고 싶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들을 닮았으면 좋겠다.

17.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성경 본문> 눅 16:19~31

16:19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베 옷을 입고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20 그의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중기투성이인 채로 누워서,

21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중기를 핥았다.

22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23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

25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네가 살았을 때에 너는 네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26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27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러면 아버지여,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그를 제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28 제게 다섯 형제들이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29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30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죽은 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31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살아난다 하여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금년 여름(2010년) 최고 기온이 36℃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있었다. 이 정도의 기온도 견디기 힘든데 과연 지옥은 어떨 것인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말씀이 생각났다.

1.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 지옥, 음부, 불못 등으로 표현됨

1) 의식이 살아 있는 곳 (본문 23~24)

의식 불명의 상태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아니고 정신이 또렷하여 슬픔, 절망,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는 곳

2) 고통스러운 곳 (본문 28)

고통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름, 행위대로 심판 (계 20:13)

고통이 아주 심함, 슬피 울며 이를 갈 (마 22:13)

3) 어둡고 음산한 곳

바깥 어두운 데 (마 8:12)

유황불이 타는 음산한 곳 (계 21:8)

4)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막 9:48~49)

유황불이 타는 뜨거운 곳,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애원하는 곳

5) 천국과 완전히 분리된 곳 (본문 26)

천국과 지옥 사이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서로 오갈 수 없음

6)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지옥도 영원히 계속되는 형벌 (마 25:46)

7) 사탄이 지배하는 곳

계 20:1~3

2. 지옥엔 누가, 언제 가는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이 죽는 즉시
그 영혼이 지옥에 감 (본문 22~23)

천년 왕국 끝에 있을 백보좌 심판 때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감 (계 20:11~15)

3.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함

다른 방법이 없음 (행 4:12)

4.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옥에 보내지 않는 방법

롬 10:13~14

전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

18. 서원

<성경 본문> 창 28:10~22

28:10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11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자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웠다.
12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13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14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15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16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고,
17 두려워하면서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구나.”라고 말하였다.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19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그 성의 이전 이름은 루스였다.
20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주시며,

21 제가 평안히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22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서원 : 특별한 은혜(도우심)를 받거나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께 약속 드림

1. 은혜를 받기 위한 서원의 예

1) 야곱의 뱀엘 서원

피난길의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면서 3가지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소득의 십분의 일을 드리겠습니다.

2) 한나의 서원

삼상 1:10~11

자식을 낳지 못해 브닌나에게 멸시를 당하던 한나의 서원,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2. 헌신 서원의 예

1) 나실인 서원

민 6:2~6 (삿 13:3~5, 삼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기를 서원함

포도주를 먹지 마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시체(부정한 것)을 가까이 마라

2) 사도 바울의 서원
행 18:18

3. 서원 이행

1) 파약하지 말라
민 30:2

2) 미루지 말라
신 23:21

3) 변하지 말라
시 15:4

4) 더디게 말라
전 5:4

5) 후회하지 말라
전 5:6

4. 나의 서원

미국 LA 동부 교회에서 시무하시는 이용규 목사님의 강해설교
“스가라서”편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학대를 받게 하신 것은 모세의 인도를 잘 받게 하기 위함이다.”

즉 애굽 정 떼기란 해석이다. 이 글을 내가 서울에 있을 때 (2003년 경) 읽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들렸다. 나의 회사 생활이 무척 힘들다고 생각 할 때였다. 신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다.

그런데 그 후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중에서 아내의 한 마디가 들려왔다. “자질 없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면 양들이 괴롭다.” 그 순간 내가 신학을 하겠다는 마음이 싹가졌다.

내 평생 동안 이 문제를 생각해야겠다.

19. 분을 내지 말라

<성경 본문> 창 4:1~15

4:1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와 도움으로 남자 아이를 얻었다.” 하였다.

2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3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4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화를 내며 왜 네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7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그 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다.

8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들로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가인이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라고 말하였다.

10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다.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12 네가 땅을 경작하더라도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네게 나타내
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13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저의 형벌이 제게 너무 무겁습니
다.

14 보소서, 오늘 주께서 저를 지면에서 쫓아내시고, 제가 주님의
얼굴을 뵈지 못하게 되면, 저는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
이며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니,

15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
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만나는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1. 분노는 무엇인가

분노 : 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성을 냄

분이 나는 이유 :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멸시할 때, 나의 자
존심을 세울 때

분이 나면 흥분, 얼굴이 붉어짐(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입술이 파
르르 떨리고), 말이 거칠어짐, 주먹이 나감

2. 분노 때문에 망한 사람

1) 가인 (본문)

자기 생각대로 정성껏 준비한 제물(곡식)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
렸는데, 하나님께서 열납하시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양)를
열납하신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음. 그리고 한적한 들에서 동생을
죽임

자기가 잘못된 것은 생각지 않고 남이 잘한 것을 시기 질투하고, 그 감정을 오랫동안 풀지 않고 베풀고 있다가 결국은 살인까지 한 것.

2) 어느 장관님

국정감사에서 취재기자들에게 분이 나서 말한 것(~뻑뻑, ~찍지마) 때문에 곤역을 치름

3) 스승을 죽인 사람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시험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선생님께 매를 맞은 사람이 21년이 지나 30대 후반이 되었는데도 그 분을 풀지 못해 그 선생님을 전화로 또는 찾아가서 괴롭히다가 끝내 흉기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3. 하나님을 진노하신 일

1) 인본주의에 진노하심

창 11:3~4, 바벨탑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2) 말씀(진리) 없는 열심에 진노하심

삼하 6:6~8

언약궤는 레위지와 고핫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날뛰어 언약궤가 흔들리게 되니까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은 고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함

교회는 하나님의 것임, 사람이 세우려고 해도 안 되고, 내 생각

대로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3) 성전을 더럽힌 것에 진노하심

마 21:12~13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임

4. 의분 : 불의에 대하여 일으키는 분노

1) 다윗

삼상 17:25~26

17:25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오는 그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러 올라왔다. 그를 죽이는 사람을 왕이 큰 재물로 부하게 하고 왕의 딸을 그에게 주며, 그 아비 집에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26 다윗이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 주니까? 참으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라고 하니,

2) 여호수아와 갈렙

민 14:6, 열두 정탐꾼 중 열 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된다고 악평할 때

3) 비느하스

민 25:11, 싯딤에 머물 때 이스라엘이 발람의 꾀에 빠져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

어나서 음행하는 남녀를 죽임

하나님의 일(교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되어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못 본체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5. 분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분을 품고 있으면 ‘화병’이 됩니다. 당장에 분을 내는 것도 문제이고, 그 분을 풀지 않고 오래 간직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

1) 참아야 됩니다.

약 1:19~20 분을 내지 말자

마 7:1~2 비판하지 말라

2) 풀어야 됩니다.

엡 4:26 해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약 2:13 긍휼없는 심판

20.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성경본문> 요일 4:7~21

4: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8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 주신 것이다.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13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14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한다.

15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17 이렇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던 것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21 우리가 이 계명을 그분에게서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차례

1. 사랑의 십자가
2. 사랑의 십계명
3. 사랑은 이런 것
4. 사랑이 없으면
5. 사랑의 5단계

1.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 누가 나의 죽음을 대신 하려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어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연약하고 더러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나가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나처럼 사랑하시는 우리의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서로 사랑(아가페)하십시오.

※ 십자가의 의미

수직 :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수평 : 사람과 사람의 사랑

2. 사랑의 십계명

계명은 지켜야 되고, 그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명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것입니다.

1) 하나님을 사랑하자

출 20:3~11

- 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 ②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 ③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 ④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2) 형제를 사랑하자

출 20:12~17

- ⑤ 부모를 공경하라
- ⑥ 살인하지 말라
- ⑦ 간음하지 말라
- ⑧ 도둑질하지 말라
- ⑨ 거짓증거하지 말라
- ⑩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3. 사랑은 이런 것

고전 13:4~7

- ① 오래 참고
- ② 온유하며
- ③ 투기하지 아니하며
- ④ 자랑하지 아니하며

- ⑤ 교만하지 아니하며
- ⑥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 ⑦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 ⑧ 성내지 아니하며
- ⑨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 ⑩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 ⑪ 진리를 기뻐하며
- ⑫ 모든 것을 참으며
- ⑬ 모든 것을 믿으며
- ⑭ 모든 것을 바라며
- ⑮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 사랑이 없으면

고전 13:1~3

13: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징이나 울리는 쟁과리가 될 뿐이다.

2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헛것입니다.

5. 사랑의 5단계

- ① 관심
- ② 이해
- ③ 용서
- ④ 화합
- ⑤ 희생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일이든지 세상일이든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십시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사의 글

이 책이 세상에 나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써놓고도 나도 읽지 못하는 글자가 있을 정도의 악필인 원고를 워드하여준 박은찬군과 성경 본문과 예문을 한자 한자 워드한 유지은양의 자원봉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은찬군의 신학공부와 지은이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원고를 두번 세번 읽으시고 조언해주시고 출판하도록 도와주신 이창경 목사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글쓴이 이재학

저자소개

사진

탄방교회 시무장로
건설기계검사소 재직중

섬기는 교회

탄방교회(예장 계신) www.tbch.or.kr
대전 서구 도산로 403번길 67(탄방동)
당회장 목사 이창경